

밀의 공리주의에 있어서 쾌락의 질적 차이

김은미*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느낌, 쾌락, 속성으로서 양과 질, 질적 차이, 능숙한 판단자, 고급 능력

요약문

이 글은 질적 쾌락에 대한 밀의 이론을 탐구한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경험자의 선호’이다. 이들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고급스러운 능력이다. 밀에 의하면, ‘유능한 판단자’의 판단은 그들이 가진 정신의 고급스러운 능력에 의존한다. ‘유능한 판단자’의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밀이 이해하는 ‘쾌락’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폭 넓은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 ‘쾌락’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유능한 판단자’를 탐구하는 것이다.

* 동서울대학교

“유능한 판단자들의 평결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호소할 것이 없다.”¹⁾

1. 들어가는 말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되는
반면에, 쾌락의 평가는 오직 양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²⁾

공리주의자로서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두 개의 쾌락을 비교할 때
쾌락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은
공리주의자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³⁾은 주로 『공
리주의』⁴⁾가 출판된 이후 등장한다. 그리고 밀의 공리주의 연구는 주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수정론자들⁵⁾에 따르면 쾌락을 이해하

1) J. S. Mill, *Utilitarianism*, 282쪽.

2) J. S. Mill, *Utilitarianism*, 279쪽.

3) 이러한 비판의 선두에는 Henry Sidgwick, T. H. Green, F. H. Bradley, G. E. Moore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쾌락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질의 소개는 쾌락주의에 대한 밀의 근본적인 방침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4) 이 저서는 기묘한 태생을 가지고 있다. 처음 이 글은 학술지가 아닌 종합잡지에서 등장했다. 후대의 학자들에 따르면, 밀은 실제로 이 글의 목적을 공리주의 이론의 반대자 혹은 비평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Fraiser's Magazine*의 일반 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밀은 그의 글을 1861년 10월 11월 12월 세 번에 걸쳐 게재했다. 2년 후인 1863년 이 글들은 『공리주의』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5) 수정주의적 연구와 해석의 움직임이 등장하고 그들의 테마는 존 스튜어트 밀을 절망적일 정도로 혼란한 사상가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도 없고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수정주의는 밀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19세기 영국 공리주의의 목표와 교의를 희화화했던 이전 세대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는 방식에 따라 이러한 일치성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밀 공리주의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밀에게서 쾌락의 의미와 양과 질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쾌락에 대한 밀의 이해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지만 그의 공리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때문에 밀 연구자들은 쾌락의 질적 우월성이 무엇인지,⁶⁾ 그리고 밀이 제시하는 ‘쾌락’, ‘질’ 그리고 ‘양’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한다.⁷⁾ 하지만 이들의 탐구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밀이 『공리주의』에서

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밀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철학자들과 사회 이론가들에 의해 밀의 본질적인 논의에 대한 조급하고 주제넘은 판단에 의해서 아주 불명료해졌다는 것이다. John Gray “John Stuart Mill: Traditional and Revisionist Interpretations” *Literature of Liberty*, 1979. 수정주의자들에는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Berkeley, 1984. John Gray, *Mill on Liberty: A Defence*, London, 1983, Robert W. Hoag, “Happiness and Freedom: Recent Work on Jon Stuart Mill”,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86. 등이 있다.

- 6) 쾌락의 질에 관한 표준적 견해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53, No. 212, 2003, 7.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and Utilitarianism”, Part II, *Utilitas*, vol.21, No.2, 2009, 6. “What are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Prolegomena* 7, 2008. 표준적인 견해는 질적 우월성을 지닌 쾌락이 존재하고 쾌락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쾌락은 양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택되어져야만 한다.
- 쾌락의 질에 대한 비표준적 견해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3, No. 210, 2003. 1. “On an Interpretation of Mill’s Qualitative Utilitarianism”, *Prolegomena*, 5, 2006. 비표준적 견해는 두 개의 쾌락 중 하나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선택된다면 그것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해야한다.
- 7) Robert Hoag, “J. S. Mill’s Language of Pleasure”, Wendy Donner, “Mill’s Theory of Value”, Francisco Vergara, “Bentham and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s”.

‘쾌락의 질’ 혹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의 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그의 사고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질적 공리주의를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다. 이 시도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방식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밀의 대답은 ‘경험자 혹은 판단자의 선호’다. 왜 그는 ‘경험 있는 자의 판단’을 중요하게 간주했던 것일까? 이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쾌락’, ‘양’ 그리고 ‘질’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경험자의 선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쾌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밀이 ‘쾌락’의 의미를 일상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쾌락의 속성이라 일컬어지는 ‘양’과 ‘질’은 규정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논리학 체계』(이하 『논리학』)에 제시된 ‘쾌락’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쾌락의 속성이라 일컬어지는 ‘질’과 ‘양’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쾌락의 질적 차이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고급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2. 느낌이라는 ‘쾌락’에 대하여

밀은 『논리학』에서 모든 철학자들이 언어가 명백하게 사고의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이고 그 수단이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의 결함은 사고의 진행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한다는 것에 동의해왔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 결합은 결과의 확신에 대한 모든 근거를 파괴⁸⁾하기 때문에 명칭의 올바른 사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밀의 공리주의에서 사용되는 ‘쾌락’이라는 용어의 불분명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론을 오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우리가 공리주의 특히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 이해하는 ‘쾌락’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쾌락’의 의미와는 다른 측면⁹⁾이 있다. 일상적인 의미의 ‘쾌락’이 주로 육체적인 감각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공리주의에서 밀의 쾌락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리학』 2장은 이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밀은 이름이란 어떤 명칭의 주어 혹은 술어에 공헌하는 용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사물을 표시하고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이름(name)은 그저 사물들에 대한 우리 관념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이름이면서 그것을 표시한다. ... ‘돌’이라는 단어의 소리는 하나의 돌에 대한 표시가 되어야만 한다, 그 이외의 어떤 의미로도 이해될 수 없다, ‘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돌’을 발음하는 그가 돌을 의미한다는 것에 집중한다. ... 이름은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사물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지, 그것에 대한 나의 관념에 관한 믿음이 아니다.”¹⁰⁾

밀은 이름을 가진 사물들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바로 속성(Attributes), 실체(Substances), 그리고 느낌(Feelings)¹¹⁾이다. 이들 중

8) J. S. Mill, *System of Logic*, 7쪽.

9) 밀은 『논리학』에서 모든 저자는 자신의 주제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10) J. S. Mill, *System of Logic*, 30~31쪽.

‘느낌’은 가장 넓게 사용되는 범주다.

“느낌 혹은 의식의 상태는 철학적 언어로 동일한 표현이다. 모든 것은 정신이 의식하는 것의 느낌이다; 모든 것은 정신이 의식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감각적인 존재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¹²⁾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느낌’은 신체적 감각이나 단순 감각에 국한된다. 하지만 여기서 밀은 그 용어를 아주 넓게 사용하고 있다. ‘느낌’이라는 범주에는 정신이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밀은 언어가 주는 애매함을 경계하고 피하려고 노력했다. 밀은 ‘느낌’을 그저 신체적 감각이나 단순감각에 국한시키는 것은 크나큰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신’이라는 용어에도 적용된다. 즉 정신을 그저 지성에만 한정하고 의지나 정감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왜곡이 될 수 있다. ‘느낌’은 인간의 감각적이고 감성을 자극하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상태에 속한 이질적인 범주¹³⁾로 칭해진다. 그 느낌에는 감각, 감정, 사유 그리고 의지력이라는 하위의 네 가지 종이 속한다. 사유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할 때 내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관념, 이미지, 믿음, 그리고 마음속의 그러한 활동들)을 함축한다. 이를 통해 사유라는 것은 정신 밖에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그 자체를 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양

11) 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분류에 대해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한 범주 목록은(실체, 양, 질, 관계, 능동, 수동, 공간, 시간, 자세, 상태)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밀은 이러한 범주의 목록들이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하고 몇 가지 대상이 생략되어 있어 결함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밀은 더 나은 분류표가 등장할 때 까지 자신의 분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표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2) J. S. Mill, *System of Logic*, 51쪽.

13) Robert Hoag, “J. S. Mill’s Language of Pleasures”, 251쪽.

혹은 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태양과 신 그 자체는 사유가 아니다. 태양이나 신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신에 대한 관념이 곧 사유이다. 더 나아가 태양 혹은 신의 현존에 대한 그의 믿음과 불신도 사유에 속한다.¹⁴⁾ 의지력은 의지에 따른 행위, 어떤 행동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어떤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의 상태다. 감각¹⁵⁾이란 정신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각은 육체적인 상태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발생된 그러한 종류의 느낌이다. 감정은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정신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느낌’의 범주에 속해있는 네 가지 하위의 것들 모두 우리의 정신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느낌은 모두 정신의 상태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정신의 상태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신체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정신의 상태다. 단지 그런 느낌을 생산하도록 하는 원인이 다를 뿐이다.

“철학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차이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심지어 감각은 신체의 상태가 아니라, 지각 있는 정신의 상태이다 ... 육체적인 느낌으로 불리는 감각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느낌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을 생산하는 작용(agency)의 차이이다. 생산된 모든 것들은 정신의 상태이다.”¹⁶⁾

앞서 언급했듯이 밀에 의해 사용된 ‘느낌’은 이질적인 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렇다면 밀 이론의 중심적 개념인 ‘쾌락’은 어느 범주에 위치시켜야 할까?

14) J. S. Mill, *System of Logic*, 64쪽.

15) 제임스 밀에 따르면, 감각이란 인상주의 심리학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는 감각이란 오감에 의해서 우리가 갖는 느낌이라고 정의한다.

16) J. S. Mill, *System of Logic*, 66쪽.

“어떠한 범주가 감각, 혹은 다른 모든 느낌들(feelings) 그리고 마음의 상태-희망, 기쁨, 두려움; 소리, 냄새, 맛, 고통, 쾌락, 사유, 판단, 이해와 비슷한 것들을 포함하는가? … 느낌(Feelings), 혹은 의식 상태는 틀림없이 실재(realities) 가운데 포함시키겠지만, 그것들은 실체 혹은 속성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¹⁷⁾

이렇게 밀은 ‘쾌락’과 ‘고통’을 느낌(Feelings) 혹은 의식의 상태라는 범주에 위치시킨다. 그러면 쾌락은 감각, 사고, 의지, 감정으로부터의 느낌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감각의 쾌락, 지성의 쾌락, 느낌과 상상력의 쾌락, 그리고 도덕감각의 쾌락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꾸밈, 오락의 쾌락들도 느낌의 범주에 포함된다.

밀에 따르면, 느낌(Feelings)은 정신이 의식하는 모든 것이고, 정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다.¹⁸⁾ 쾌락이 느낌이라는 범주에 포함되고 느낌에는 감각, 의지력, 사유, 정감 등이 포함된다면, 느낌 속에 포함된 하위의 것들로부터 쾌락이 도출된다. 밀은 이러한 느낌은 모두 정신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신은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다. 그래서 밀은 느낌과 의식의 상태를 동일한 표현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을 하는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Mind)은 느끼고,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어떤 것이다. … 나는 느끼거나 혹은 의식하는 (물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나의 능력을 제외하고 나에게 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나의 본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뭔가를 알았다면, 나는 현재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추가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것 이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¹⁹⁾

17) J. S. Mill, *System of Logic*, 29쪽. 실체의 범주를 속성들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물리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속성을 양, 질, 관계로 구분한다.

18) J. S. Mill, *System of Logic*, 63쪽

19) J. S. Mill, *System of Logic*, 78쪽.

비록 밀이 정신을 불가사의한 어떤 것으로 남겨둔다고 해도, 정신의 활동은 분명하다. 그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신의 능력이다. 결국 ‘나의 능력’이란 정신이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성이 속한 능력, 감정이 속한 능력, 의지력이 속한 능력의 인지가 포함된다. 이것을 우리의 쾌락과 연관시킨다면, 지성, 감정 의지력의 능력을 통한 쾌락은 모두 정신이 느끼는 쾌락이다. 쾌락은 정신에 의해서 경험되고 정신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은 것은 쾌락이 될 수 없다. 모든 쾌락은 우리의 정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정신에 의해 경험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밀은 ‘쾌락’을 느낌으로 분류하고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느낌으로 분류된 쾌락은 정신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으면 쾌락이 될 수 없다. 쾌락을 야기하는 작용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쾌락은 정신에 의해서 경험된다. 그런데 밀은 느낌으로서의 쾌락이 정신에 의해서 경험된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질과 그 질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장한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밀이 제시하는 ‘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3. 쾌락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에 관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되는 반면에, 쾌락의 평가는 오직 양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에 비해 질적으로 우월하다”²⁰⁾

20) J. S. Mill, *Utilitarianism*, 279쪽.

이 구절은 『공리주의』가 등장한 시기부터 밀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비판가들은 쾌락의 ‘질’ 존재와 그러한 쾌락이 소유한 질의 차이가 가진 모호함에 집중하였다. Guy Fletcher²¹⁾는 밀의 ‘질’ 개념이 다소 불가사의하게 남아 있다고 비판하고 Michael Hauskeller²²⁾는 쾌락의 질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실체적이지 않으며 논증 전체에 걸쳐 모호하게 남아 있으며 그것은 마치 칸트의 물자체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밀이 쾌락의 평가에 있어서 ‘질’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의 차이에 대해 주장하지만 그는 ‘질’에 대한 분석과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Wendy Donner의 경우, ‘질’이라는 용어를 ‘쾌락을 선하게 만드는 추가적인 특징’이므로 양과 마찬가지로 쾌락이라는 가치에 공헌하는 ‘그냥 다른 특성’²³⁾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밀이 『공리주의』에서 쾌락의 ‘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는 그의 앞선 저작인 『논리학』에서 사물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특징 즉 양과 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마 우리는 이를 근거로 밀이 주장하는 ‘쾌락’의 질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질은 어떤 것이 갖는 특성 혹은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snow)’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은 하얀색과 차가움이라는 질을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우리가 ‘흰색’과 ‘차

21) Guy Fletcher, “Qualitative Hedonism and Malicious Pleasure”, 467쪽.

22) Michael Hauskeller, “No Philosophy for swine: John Stuart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s”, 432쪽.

23) Wendy Donner, “Mill’s Utilitarianism”, 263쪽.

가움'이라고 부르는 느낌을 생산하는 그런 힘을 갖는다고 의미한다. 둘째, '질'은 '양'과 반대된다. 이러한 경우의 '질'은 우리가 '양'을 제외하고 소유하는 성질 혹은 특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세 번째로 '질'은 '상스러움' 혹은 '통속적임'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그렇다면 밀이 의미하는 '질'이란 무엇인가?

『논리학』에 제시된 양과 질에 대한 밀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들은 사물에 속한 속성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다. 밀은 물과 와인의 예를 통해 '양'과 '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직 양을 제외하고 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는, 두 가지 사물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1갤런 이상의 물. 1갤런의 물은 다른 모든 외적인 대상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극하는 일련의 감각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것의 현존을 알린다. 10갤런의 물 또한 외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의 현존을 알린다. 우리가 10갤런의 물을 1갤런의 물과 혼동하지 않을 만큼, 감각들이 두 경우에 있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동일한 방식으로, 1갤런의 물과 1갤런의 와인 은 두 개의 외적 대상이고, 두 개의 감각집합들 (two sets of sensations)로 그들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린다, 그러한 감각들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경우에 우리는 그 차이를 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 물의 양과 와인의 양은 동일한 반면에 질의 차이가 있다.”²⁵⁾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전달한다. 그것은 두 가지 사물에 '양의 차이'와 '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차이는 오로지 외적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우리의 감각의 차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24) Francisco Vergara, “Bentham and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 3~4쪽 참조

25) J. S. Mill, *System of Logic*, 90쪽.

따라서 사람들은 내적 요인으로 물이 와인보다 더 좋다거나 와인이 물보다 더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물과 와인은 다르고 그 차이는 질에 의존한다. 물과 와인에 대한 양의 차이 경우, 밀이 위의 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피(volume), 양(bulk), 강도(intensity)²⁶과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밀은 모든 대상의 감각에 있어서 더 많고 적은 양, 혹은 더 적은 정도의 강도에 의해서 자극된 감각에 있어서 의심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의 차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차지하는 부피(연장?) 즉 양의 차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제외하면 그것의 나머지 특성들(예를 들어, 맛, 향, 질감 등)은 질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주어진다.

이러한 사물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양과 질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인 대상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공리주의』에 제시된 쾌락의 속성으로서 ‘양’과 ‘질’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속성이 ‘양’과 ‘질’로 구분될 수 있다면, 쾌락도 두 가지 별개의 속성들인 ‘양’과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속성들은 쾌락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그 때 평가는 양적인 것과 상관없이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에 비해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에 집중한다.

밀이 ‘양’과 ‘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와인과 물의 예는 너무 단순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그저 단순한 쾌락을 설명하는 것에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시와 설명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밀의 의도는 양적인 차이와 질적인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그 차이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적 차이가 공리주의라는 틀에 어떻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26) J. S. Mill, *System of Logic*, 94쪽.

4. ‘능숙한 판단자’와 고급 쾌락

지금까지 쾌락은 느낌이고 쾌락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질은 경험자들에 의해 경험될 수 있고 질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질의 차이가 쾌락에 적용되었을 때 두 쾌락 사이에는 질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는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에 비해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질적 차이에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밀이 쾌락의 질적 차이의 판단과 관련하여 제시한 기준은 실천적 반성(자기반성과 토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판단자들로 드러날 것²⁷⁾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저 쾌락으로서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의 더 큰 양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가지 대답이 있다 ... 만약 두 가지 쾌락 중, 이 둘 모두를 충분히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시된다면, 설령 이러한 선호가 엄청난 양의 불만족을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쾌락의 많은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의 기질(nature)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정도의 가치를 표현하는 더 큰 양에 비하여 그 선호된 즐거움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²⁸⁾

질적 차이의 기준에 대한 밀의 대답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능숙한

27) John Skorupski, “John Stuart Mill”,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17쪽.

28) J. S. Mill, *Utilitarianism*, 279쪽.

판단자'의 선호이다. '능숙한 판단자'의 선호는 어떤 쾌락을 좀 더 특별하게, 즉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특징에 기여한다.

“두 쾌락 중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지의 질문에 대해 ... 양쪽 모두에 대해 정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양쪽에 모두 익숙한 사람의 생각이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²⁹⁾

위의 구절들을 통해 밀의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테스트에 있어서 '능숙한 판단자'의 선호에는 쾌락의 양적 특징들이 배제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비교가 될 두 쾌락 모두를 경험해본 사람들, 그들은 두 쾌락 모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강한 성격을 소유한 적당하게 잘 교육받고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한 느낌과 의식을 가진 관찰력이 예리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다. 밀은 이러한 능력을 인간 고유의 고급 능력으로 간주한다.

“보기 위한 관찰 능력, 예측하기 위한 추론과 판단, 결정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능력, 결정을 하기 위한 판별능력,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자신의 숙고된 결정을 지지하기 위하여 확고 부동함과 자기 통제의 능력”³⁰⁾

이러한 능력은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 짓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일단 이런 능력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능력이 사용되지 않는 것에서는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보, 무식한 사람 그리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라도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29) J. S. Mill, *Utilitarianism*, 282쪽.

30) J. S. Mill, *On Liberty*, 85쪽.

어떤 경험을 알아채고 평가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다.

“두 쾌락 모두를 잘 알고 있고, 동일하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고급 능력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을 강력하게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어떤 사람도 짐승의 쾌락에 대한 가장 많은 수여의 약속 때문에 인간이 어떤 하등동물로 전락해 버릴 것이란 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지적인 인간이 바보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교육 받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인정 많고 양심적인 사람이 이기적이고 비열해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³¹⁾

“만일 인간이 돼지와 똑같은 쾌락을 즐긴다면, 한쪽에 좋은 삶의 규칙이 다른 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짐승의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짐승에게 해당되는 쾌락이 인간의 행복 개념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입맛대로 사는 동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단 그런 능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그것의 발휘와 거리가 먼 그 어떤 것도 행복이라고 간주하지 않게 된다.”³²⁾

만족한 돼지와 불만족한 인간의 차이는 인간 존재의 독특한 재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급능력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고상한 능력의 사용을 통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Fred Berger 또한 밀이 고급 쾌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런 고상한 능력들의 성취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³³⁾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복은 인간으로 하여금

31) J. S. Mill, *Utilitarianism*, 280쪽.

32) J. S. Mill, *Utilitarianism*, 278~279쪽.

33) Fred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39쪽.

그들의 고급 능력을 개발하고 개발된 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발된 정신적 능력을 가진 개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단순한 기초 혹은 유치한 쾌락의 더 큰 양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분별 있는 지적 쾌락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³⁴⁾처럼 보인다. 우리의 고급스러운 능력을 사용으로부터의 쾌락은 선호할 만하고 판단자들에 의해서 선호될 것이다. 그렇게 선호된 쾌락은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쾌락으로 간주된다. 물론 밀이 판단자들의 무오류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된 능력을 소유한 판단자라면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밀이 쾌락의 질적 차이의 기준으로 제시한 ‘능숙한 판단자’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 판단, 차별적 감정, 정신적 활동,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선호까지 소유한 인간의 능력은 오직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발휘된다. ... 선택을 하지 않고 관습을 따르는 것에서는 최선의 것을 판별하거나 욕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없다. 육체적 힘과 마찬가지로 정신적·도덕적 힘은 오직 사용될 때만 향상될 수 있다.”³⁵⁾

Wendy Donner는 밀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쾌락의 가치를 측정하고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의 비판적인 개발, 일련의 적당한 기준들에 대해 배우는 훈련과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4) Ben Saunders, “Reinterpreting the qualitative hedonism advanced by J. S. Mill”, 13쪽.

35) J. S. Mill, *On Liberty*, 84쪽.

5. 나오는 말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글의 목적은 밀의 공리주의를 폭넓게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그러한 시도의 중심은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방식의 탐구다. 질적 차이의 기준은 ‘능숙한 판단자’의 선호 혹은 능력이다.

쾌락의 질적 차이 특히 고급 쾌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쾌락, 질, 양이다. ‘쾌락’과 ‘질’의 개념은 밀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의 이해에 따라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리주의에 ‘질’을 도입함으로써 그가 받는 ‘불일치성’의 논란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용어들의 의미 탐구에 따라 밀의 질적 공리주의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공리주의』에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테스트 혹은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고 나머지의 개념들의 설명은 거의 생략되었다. 『공리주의』에서 생략된 ‘쾌락’과 ‘질’이라는 용어의 설명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한 더 많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필자가 살펴본 바와 같이 ‘쾌락’과 ‘질’의 의미는 그의 『논리학』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여기에 제시된 ‘쾌락’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 쾌락은 느낌을 의미하고 그 느낌은 정신이 하는 모든 활동³⁶⁾(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쾌

36) 고급 쾌락을 정신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엘리트주의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은 ‘헤비메탈’ 음악을 비판적으로 듣는 것보다 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플라톤의 책을 대충 읽는 것은 대중적인 영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보다 덜 가치 있

락은 어떤 속성(양과 질)을 함축하고 있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그것을 경험해 본 판단자의 능력 사용에 의지하게 된다. 질적 우월성은 그것을 경험해본 판단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선호할 때 결정된다. 밀은 ‘능숙한 판단자’의 선호 혹은 그들의 능력 활용과 관련하여 그것들은 개발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그러한 능력들을 향상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을지도 모른다. Robert Hoag, “J. S. Mill’s Language of Pleasures”, 277쪽 참조.

참고문헌

- 제레미 벤담, 고정식 역,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나남, 2012.
-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and other essays*, Penguin Books, 1987.
- _____,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Project Gutenberg, online ebook <http://www.gutenberg.org>.
- _____, *On Liberty*, A forum Book, 1966.
- _____, “Bentham”, Alan Ryan(ed), *Utilitarianism and other essays*, Penguin Books, 1987.
- Benjamin Gibbs, “Higher and Lower Pleasures”, *Philosophy* 61, 1986.
- Ben Saunders, “Reinterpreting the Qualitative hedonism Advanced by J. S. Mill”, *Value Inquiry*, 2011, vol. 45.
- _____, “J. S. Mill’s conception of Utility”, *Utilitas*, Vol. 22. 2010.
-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3. 2003.
- Daniel M. Haybron, “Happiness and Pleasur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62, 2001.
- Elliot David Cohen, “J. S. Mill’s qualitative Hedonism: A textual Analysis”,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 18, 1980.
- Francisco Vergara, “Bentham and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s”, *Revista Iberoamericana de Estudios Utilitaristas*, 2003.
- Fred Feldman, “On the Intrinsic Value of Pleasures”, *Ethics*, Vol. 107. No. 3, 1997.
-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Berkeley, 1984.
- Henry R. West, “Mill’s Qualitative Hedonism”, *Philosophy*, 1976.
- John Gray, *Mill on Liberty: A Defence*, London, 1983.

- _____, “John Stuart Mill: Traditional and Revisionist Interpretations”,
Literature of Liberty, vol. ii, 1979.
-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3. 2003.
- Luo Lu, Jian Bin Shin, “Sources of Happiness: A Qualit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7, 1997
- Michael J. Zimmerman, “Mill and The consistency of Hedonism”,
Philosophia, 13, 1983.
- Michael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Penguin Book,
2010.
- Nicholas L. Sturgeon, “Mill’s Hedonism”,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0.
- Pavel Janda, “Relation between Quality of Pleasure and Quantity of
Pleasure in J. S. Mill’s Theory of Utilitarianism”, E- LOGOS,
Electronic Journal for Philosophy, 2011.
- Robert W. Hoag, “Happiness and Freedom: Recent Work on John Stuart
Mill”,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xv, 1986.
- _____, “Mill’s Conception of Happiness as an Inclusive En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xxv, 1987.
- _____, “J. S. Mill’s Language of Pleasure”, *Utilitas* Vol.4, No.2, 1992.
- Roger Crisp, “Hedonism Reconsidered”,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XII , No. 3. 2006.
- Wendy Donner, “Mill’s utilitarianism”, in John Skorupski(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i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Mill’s Theory of Value”, *Mill*, Wiley-Blackwell, 2009.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Pleasures in Mill's Utilitarianism

Kim Eun Mi (Dong Seoul University)

Presented article explores Mill's theory of qualitative pleasure. In order to identify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pleasures, the most persuasive argument is the competent's preferences. The reason that we trust their judgements is because they have mental higher capability. According to Mill, 'the competent's preferences' depend on their higher capability. How persuasive 'the competent's preferences' is is related to the meaning of 'pleasure' as Mill understands i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meaning and attributes of 'pleasure' and 'the competent' as an attempt to understand widely Mill's qualitative pleasure.

Key words: Feelings, Pleasure, Quantity and Quality as Attribute, The qualitative difference, Competent Judge, higher faculty

김은미 e-mail: platonsilver@hanmail.net

투 고 일	2017년 07월 13일
심 사 일	2017년 07월 27일
게재확정	2017년 08월 11일